

이 대통령 “추경 편성·금리인하… 내수 살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세수를 국회와 상의해 내수진작에 쓰겠다고 밝혀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결한 추가 세수를 5월에 국회를 열어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계잉여금은 15조3천억원이며 이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써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추경 편성이 가능한 금액은 4조8천억원이다.

▷내수부양…추경+금리인하=이 대통령은 내수 부양을 위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에서 상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줬다.

정부는 이미 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교부금 정산분 5조5천억원을 4월에 배정해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방교부금 정산은 통상 9~10월에 집행됐지만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등 지방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시사함에 따라 지방교부금 조기 정산과 감세재원 활용 뿐 아니라 예산지출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투자 촉진 조속 추진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강관수 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현재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는 내수 진작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임시국회서 규제완화 법안 처리=이 대통령은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임시국회서 금융과 기업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는 대표적인 규제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방안을 제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반기 중으로 출자총액 폐지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며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단계와 2단계의 동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법을 고친다는 계획으로 5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정위는 출자총액 폐지와 자산규모 3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과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살려 좋은 일자리 창출=이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외에도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관광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8일 문화체

육관광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관광단지 개발·허가기간을 37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관광호텔 영세율 연장과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자 확대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 사업서비스 등의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이달 30일까지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의료부문의 경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해외 의료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규제완화 뿐 아니라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자유화,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으로 세부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아울러 IT서비스와 게임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총선 민의를 ‘경제·민생살리기’로 해석하며 이 분야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세계 최악의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

IMF 봄 연차회의 첫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12일 워싱턴에서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와 빈곤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인플레이션 위험증가 문제, IMF의 현안인 예산감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봄 연차회의의 첫날인 이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IMF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이사회회의 의석을 현재 24개에서 2010년까지 22개로 그리고 2012년까지 20개로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신흥시장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IMF 지분을 40.5%에서 42%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이 지분조정안이 확정되면 선진국들의 IMF 지분비율은 59.5%에서 58%로 줄어든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직원 2천600명 중 15%를 감축하고 IMF의 대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9억2천30만달러 예산 가운데 1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경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대단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경제의 조정과 금융시장의 어려움, 상품가격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2008년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며 “어떤 경제도 세계적 흐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확대”

기업 부채비율 축소·영업이익률 증대 등 ‘긍정적’

KIET 보고서

산업연구원(KIET)은 13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화가 실증분석 결과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KIET는 이날 발표한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976년 이후 연도별 경제변수들을 통해 설비투자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완화와 기업 부채비율 축소, 영업(경상)이익률 증대, 총요소생산성 증가 등이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같은 제도들은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투자되는 자본의 비용을 뜻하는 ‘사용자 비용’을 낮춤으로써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게 KIET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1990년대까지 두 자리수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년 1.2%로 감소할 정도로 위축된 뒤 2006년과 2007년 다시 7.7%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KIET는 “최근의 설비투자 회복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5%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IET는 이와 관련, “설비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혁신을 통해 자본생산성을 제고하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사용자 비용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비스 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제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일염 사세요”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청정지역인 신안군 신의도에서 생산한 명품 토판염(훈염전 소금)과 3년 묵은 천일염을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토판염은 1kg에 32만8천원, 천일염은 1kg에 3천800원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청정지역인 신안군 신의도에서 생산한 명품 토판염(훈염전 소금)과 3년 묵은 천일염을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토판염은 1kg에 32만8천원, 천일염은 1kg에 3천800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정부 美쇠고기 연령 제한 포기하나

韓美정상회담 앞두고 조기 타결 조짐… 광우병 위험물질 수용 가능성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해 이번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매듭짓자는 기류가 정부 내에서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 기준을 아예 포기하고 연령 제한을 한꺼번에 철폐하거나, 여러 종류의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30개월 왜 중요인가=13일 정부 관계자와 축산물 수입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현행 ‘30개월 미만’ 소의 연령제한이 어떻게 완화될지, 현재는 전혀 들어올 수 없는 SRM가 어떤 종류까지 허용될지 등 두 가지다.

LA갈비 등 ‘빠가 붙은 쇠고기’의 허용은 이미 작년부터 우리 정부 내부방침으로도 정해진 것이라 기정사실과 다름이 없고, 더 이상 협상의 관건이 아니다.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광우병 관련 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연령제한 고수 의지 ‘실종’= 현재 정부 안의 분위기는 ‘30개월 미만’ 폐지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들은 “30개월이라는 연령 제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유지를 ‘마지노선’처럼 거론했던 지난해 10월 1차 협상 때와는 확실히 다른 상황이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미뤄 우리측이 FTA를 고려,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약속만 받고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연령 제한을 한꺼번에 풀어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수입 규모 등을 비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나라들도 제한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불성실’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주요 수입국의 경우 어느 곳도 아직 연령 제한을 풀지 않았다. 연합뉴스

시중은행 기업대출 ‘올인’

총선 여대야소 ‘MB노믹스’ 탄력 예상 ‘실탄 확보’ 분주

4월 총선이 여대야소로 끝남에 따라 ‘MB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이에 보수를 맞추는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6%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대출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서는 등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총선 이후 은행들은 2~4분기 대출전락을 가다듬고 있다. 원자재값 인상 여파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은행들은 다시 기업대출을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각에선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 시중은행들은 2분기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출문턱은 낮추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행권의 증가대출은 작년 11월 10조원 이상 급증했으나 12월에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4조2천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들어 1월 11조5천억원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월 4조1천억원, 3월 6조8천751억원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등 자산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들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올 들어 은행채 순발행액은 1월 7조1천215억원이었으나 2월 7천242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다 3월에는 5조613억원이 다시 늘어났으며 4월 들어서도 11일 현재 4조8천8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8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0 11 23 24 36 37	3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355,258,529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27
3	5개 숫자 일치	1,145
4	4개 숫자 일치	58,653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103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4조 542660
2	1억	1조 389628
3	1천만	3조 448707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50만	각조 51253
		각조 9549
6	2천	각조 60
		각조 72
		각조 49
7	1천	각조 3
		각조 5
		각조 0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네오개발	[건설공무/경리/영업/생산직] 분야별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361-2610
남해종합개발	2008년 각 부분별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220-2514
(주)림인디스트리(광주지점)	[신안파크호텔]전기기사/식음료. 경리 이브라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6	062-228-8000
(주)동연시너시스	경리, 회계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16	062-945-0606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판매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4/17	011-9598-0031
(주)그린텔	KTF 동광주 멤버스플라자 정규직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7	042-223-4900
기전산업	생산직 사원 (자동차부품조립)	고졸/경력2년	1800~2000	04/18	062-954-0330
쿠쿠북광주서비스센터	경리/회계/장부정리 담당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8	062-511-3520
(주)컴팩아시아	(주)컴팩아시아 전기 부문 경력사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4/18	070-7018-0083
(주)이인텔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8	062-601-7213
이팩스산업개발	경리 및 건설사무업무 경력자	고졸/경력2년	1400~1600	04/19	062-573-6730
(주)몰트닉스	세척공정 담당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21	062-973-1260
(주)두리광고공사	그래픽 디자이너 (코펜, 일러스트 가능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21	062-374-2204
(주)코셋	분야별 정규직 (기술개발/해외영업/품질관리/회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3	062-602-776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승용차 연비 좋아졌다

ℓ당 11km 넘어… 작년보다 2.6% 향상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들의 평균연비가 상당폭 개선되며 11km/ℓ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승용차 가운데 경차와 소형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중·대형차들도 꾸준히 연비개선이 이뤄진 결과다.

13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 전체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11.04km/ℓ로, 2006년(10.76km/ℓ)보다 2.6% 향상됐다. 이같은 연비향상으로 절약된 유류가 3천만ℓ, 줄어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만5천에 이른다는데 공단의 분석이다.

평균 연비의 개선에는 경차와 소형 승용차(배기량 1천600cc 이하)의 판매비중 증가가 상당폭 기여했다. 지난해 판매된 경차는 모두 5만3천758대로 전년보다 37.1% 늘어나며 전체 판매 승용차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4.1%에서 5.4%로 높아졌고 소형 승용차도 24만9천637대가 팔려 비중이 23.5%에서 24.8%로 늘었다.

이에 비해 배기량 2천cc 초와 대형차량의 판매는 26만6천885대로 전년보다 6.1% 줄면서 전체 승용차 판매량 가운데 비중도 전년의 29.8%에서 26.6%로 감소했다.

소형과 중형, 대형별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의 연비도 개선됐다. 소형차(1천600cc 자동차기준) 최다 판매모델의 연비는 2006년 12.3km/ℓ에서 지난해 13.8km/ℓ로, 중형차(2천cc 자동차기준) 대표차종은 10.7km/ℓ에서 11.5km/ℓ로 향상됐다. 대형차 대표모델(2천700cc 자동차기준) 역시 8.6km/ℓ에서 9.7km/ℓ로 높아졌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효율 승용차의 개발과 판매가 확대되면서 과시적인 차량 선택보다 경제성, 환경을 생각해 효율이 높은 승용차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自保料 연 10조원 돌파

자동차보험사들의 연간 매출(원수 보험료)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 국내 자동차보험사들의 원수보험료는 10조7천8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월 말까지 확정된 원수보험료 9조5천470억원에 가집계된 3월중 9천400억원의 합한 규모다. 2006 회계연도의 매출 9조5천492억원보다 11.8% 늘어났다.

자동차보험사들의 매출은 2003 회계연도 7조9천605억원에서 2004년 8조5천207억원, 2005년 8조7천889억원 등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보험업계는 이런 보험료 수입의 증가가 자동차의 고가화와 값비싼 외제차의 증가 등 때문이라고 본다. 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팔린 외제차는 1만9천481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만390대가 팔렸다.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이 2004년 16.6%, 2005년 24.5%, 2006년 23.7%, 2007년 19.6%를 기록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료도 따라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도 2003년 1천458만6천795대에서 지난해 1천642만8천177대로 12.6%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험사들이 일체화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올린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